



레지오 마리에
송파지구 '사랑의 샘 꼬미씨움'
<http://club.catholic.or.kr/sarangsem>
서울 송파구 송파동 134-2 번지 전화 415- 2748 FAX 416-0006

송파사랑: 2013 - 5

2013. 5. 5(일) 14:00

수 신 : 사랑의 샘 Co. 직·소속 레지오 마리에 전 단원

제 목 : 제 219차 사랑의 샘 꼬미씨움 월례회의 공지사항

상급 평의회 공지사항

첨부: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 제411차 월례회의 공지사항

1. 브레시디움 단장 3차 피정

일 시 ; 2013년 5월11일 14시부터 12일 17시까지.

장 소 ; 파주 예수 마음 배움터

대 상 ; 브레시디움 단장중 3차 희망자

피정비; 꾸리아에서 1인당 2만원씩 보조.

출 발 ; 11일 14시 송파동성당 앞 정시 출발. 버스 2대 대절.

준비물; 수첩,목주,소성무일도,세면도구,필기구.

2. 브레시디움 단장,서기 직책교육

일 시 : 2013년 6월9일 14:00시부터 2시간.

대 상 : 송파, 인천, 석촌 ; 신임단장. 신임서기.

잠실,잠실3,잠실7 ; 단장,서기 전원

준비물 : 수첩,목주, 필기구.

3. 세나투스 평의원 피정

일 시 ;2013년6월22일(토) 16:00 ~23일(일) 15:00

장 소 ; 배론성지

대 상 ; 직속 Re. 및 Co. 4간부

4. 종합보고 : 성조들의 모후 꾸리아.

5. 6월 종합보고 : 말씀의 궁전 꾸리아

6. 종합보고 사전 제출 : 바다의 별 꾸리아.

7. 방문지명 : 꼬미씨움 --- 매괴의 모후 꾸리아

성가정의 어머니꾸리아(단장,회계) ---성삼의 궁전 꾸리아

기 도

1) 기도를 바칠 때의 자세

쁘레시디움 주회합 등에서 '레지오의 기도'를 바칠 때, 모든 단원은 제대위의 성모님을 향하여, 일치된 모습으로, 레지오의 기도문(뗏세라나 수첩, 교본)을 손에 들고 기도를 바친다. 기도문을 암기한 단원들이 기도문을 손에 들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구별보다는 일치를 중시'하는 레지오다운 자세를 강조하는 의도 이외에도 암기 못하는 단원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배려에서 나온 결정이다. 묵주기도는 소리내지 않고 바쳐서는 안 되며 양팔 기도 등 특별한 모습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위는 일치를 위해 삼가야 할 것이다.

2) 주회합시 묵주기도의 순서

레지오의 모든 회합 때에 바치는 묵주기도는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3번) 영광송을 바친 다음, 신비(현의)에 따라 1단에서 5단까지 완전히 바친다.

3) 구원송에 대한 레지오의 견해

* 콘칠리움은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에 구원송의 의미가 이미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 레지오의 모든 공식 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구원송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 그러나 콘칠리움은 교구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구원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 다만, 레지오의 모든 회합(주회합·월례회의) 이외의 경우에 단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묵주기도의 매단 끝에 구원송을 바칠 수 있다.

4) 연이어 바치는 레지오 기도문에서의 성호

레지오의 기도문을 세 등분으로 나누지 않고 연이어서 바칠 때에는, 맨 처음과 까페나의 “+ 내 영혼이 ...” 부분과 끝에만 성호를 긋는다.

5) 협조단원의 마침 기도에서의 호도

협조단원이 레지오의 마침 기도문을 바칠 때 성모님께 드리는 호도는 뗏세라에 기록된 대로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이다.

6) 기도문 용어에 대한 판단

기도문에 사용되는 용어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과 변경은 주교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7) 레지오 조직 내의 다른 기도 모임

쁘레시디움이나 그 밖의 레지오의 조직 안에 별도의 기도 모임이나 동호인(동아리) 모임을 구성할 수 없다. 별도의 모임을 만들려는 의도 자체가 분열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레지오 마리아에 송파 사랑의 샘 꼬미씨움

단 장 정 경 훈 스테 파 노

담당사제 송 영 호 안 토 니 오